

권고들에 집중 (권고 2와 3)

<https://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saint/writings-of-francis/the-undated-writings/the-admonitions/145-fa-ed-1-page-129>

[2. 의지를 자기 것으로 삼는 악]^b

¹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는 낙원에 있는 모든 나무”에서 “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.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된다” 창세 2:16- 17

²아담이 순종을 거스르지 않았을 때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, 동산에 있었던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었습니다. ³그런데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, 자기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는 것입니다.⁴결국, 악마의 꾀에 빠져 계명을 거슬렀기 때문에, 먹은 것이 그에게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되어 버렸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벌받아야 마땅합니다.

[3. 완전한 순종]

¹주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. “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”. 루카

14,33 그리고 “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”. 루카 9,24

³자기 장상의 손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 자기 전부를 바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[자기 영혼과] 자기 몸을 잃는 사람입니다. ⁴그리고 장상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알고, 또 하는 일이 선한 것이라면, 그가 행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참된 순종입니다.

⁵그리고 아랫 사람은 장상이 자신에게 명하는 것보다 자신의 영혼에 더 좋고 더 유익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을 때라도, 기꺼이 자기 것을 하느님께 희생으로 바칠 것입니다. 그리고 장상이 명한 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힘쓸 것입니다. ⁶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과 이웃을 흡족케 하는 것이므로,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순종이 됩니다.^{1 베드로 1,22}

⁷그러나 만약 장상이 아랫사람에게 그의 영혼에 거스르는 어떤 것을 하도록 명한다면, 그 장상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를 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. ⁸그리고 만일 이 때문에 다른 이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느님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^{1 요한 3,15 1 요한 3,16 9}왜냐하면 자기 형제들과 헤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핍박을 견디는 이가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“자기의 목숨”^{요한 15,13}을 내놓기에 완전한 순종에 참으로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¹⁰사실, 자기 장상들이 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본다는 핑계로, 뒤를 돌아다 보며^{루카 9,62} “토해낸” 잠언 26,11 자기 의지로 되돌아가는 수도자들이 많습니다.

¹¹이들은 살인자들이며 또한 자기들의 악한 표양으로 많은 영혼을 잃게 합니다.

토론이나 저널 쓰기 위한 질문들

+ 오소서, 성령이시여! 제가 권고 2를 묵상할 때, 저의 정신과 마음을 열어주소서.

--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“순명”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, 우리 자신의 의지를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회칙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까?

-- 나의 합법적인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입니까?

+ 오소서, 성령이시여! 제가 권고 3을 묵상할 때, 저의 정신과 마음을 열어주소서.

-- 순명은 단순함과 겸손함과 어떻게 연관됩니까?

-- 올바르게 형성된 양심을 지니기 위해 추구해야 할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

--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자신의 의지를 버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?